

2012. 09

www.dail.org

다일
공동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다일공동체



dail

반피
Babfor

24th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이 섬김과 나눔의 길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일공동체가 태어난 지 올해로 24년이 되었습니다. 청량리역 광장에서 임시 매표소 앞에 퍼질러 앉아 라면을 끓여 대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 다일공동체의 사역이 어느덧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웃 나라들로 번져나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곁에 계셔서, 밥맛이 나고 살맛이 납니다.

홀로 외롭게 출발했던 사역이 이제는 수많은 가족들과 후원자들,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지만 고통스럽고 아팠던 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이요,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날도 친히 이끌어 주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뢰와 믿음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저는 다일공동체 24년의 걸음걸음 속에 묻어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오늘도 무릎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드릴 뿐입니다.

다일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며 힘써준 가족들, 다일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지지자가 되어준 많은 벗님들, 그리고 항상 저희의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주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 여러분들이 다일때 밀리요, 진정한 친구요, 벗님들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24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곁에 계셔서 밥맛이 나고, 살맛이 납니다.

금번엔 매주 월요일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TV 멘토링 토크 ‘시대공감Q’가 다일공동체 창립 24주년 기념 특집방송으로 만들어집니다. 스튜디오가 아닌 우리시대 나눔의 아이콘이 된 현장 ‘밥피’에서 의미 있는 방송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다일공동체의 창립기념일인 9월 10일 오후 3시 특집으로 방송될 텐데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좁은 길일지라도 다일공동체는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걸음걸음마다 이 좁고 험악하지만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길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12년 9월에

작은형제 **최) 원도** 목사 올림



* 하나님을 기쁘시게

* 이웃을 행복하게

* 세상을 아름답게

C O N T E N T S

- 02 Focus 다일천사병원 10주년 기획 - 돌아보고 내다보다 2
- 06 Review 다일영성수련
- 08 다일의 현장 밥퍼나눔운동본부
- 10 다일의 현장 다일천사병원
- 12 다일의 현장 필리핀다일공동체
- 14 다일의 현장 중국다일공동체
- 16 아름다운 변화 대안생리대 보급사업
- 17 포토 에세이
- 18 다일 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cover story

지난 24년동안 다일공동체와 함께한 이웃들의 아름다운 얼굴들을 되새기며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다일공동체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진심어린 이야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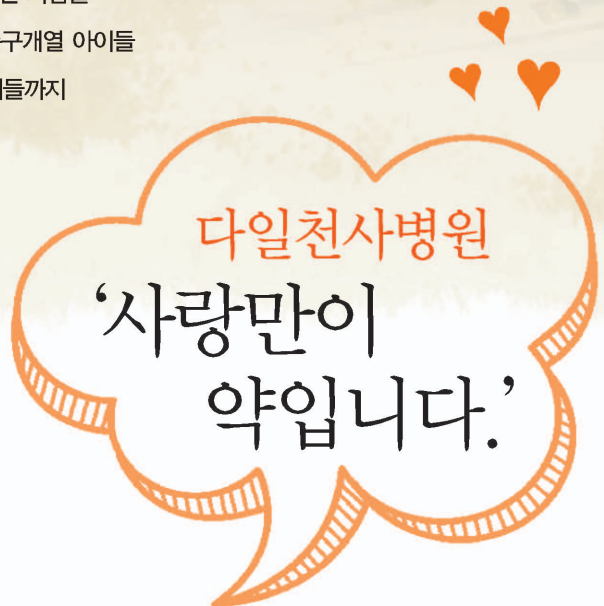
다일천사병원에는 바로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뛰어다니던
가난한 전도사의 이야기
병든 사람을 치료하지 못해 울고 있는 전도사를 돕기 위해
돈을 모아준 청량리 흥동가인 588동네 주민들의 이야기
천사병원 건립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들고 온,
청소부 아저씨와 시장 좌판 아주머니의 이야기.

이런 사랑이 신뢰의 주춧돌이 된 다일천사병원에서는
지금도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픈 몸을 끌고 달려 오던 사람들
차가운 거리에서 아무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
제3세계에서 수술을 받지 못해 놀림의 대상이었던 구순구개열 아이들
현지에서 손 쓸 수조차 없었던 척추측만증, 심장병 아이들까지
다일천사병원에 찾아와 육신의 치료는 물론,
마음의 상처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일천사병원과 임종자의 집인 다일작은천국의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다일천사병원 - 인상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로.....

아름다운 변화 프로젝트(B.C.P-Beautiful Change Project)

2005년 여름, 다일공동체는 아시아 최대 빈민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필리핀 바세코 톤도에 무쿰 레스토랑 밥퍼를 개원했습니다. 방문 중에 별거벗은 채,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아 이린(10세), 우리에게는 언청이로 잘 알려진 얼굴장애(구순구개열)를 가진 눈이 큰 아이였습니다. 필리핀다 일공동체의 분원장으로부터, 이곳 톤도에는 아이린과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베트남 아이, 깐녕의 수술 경험도 있고 해서 아시아 빈민촌의 얼굴장애 어린이들을 다일천사병원 으로 데려와 수술을 통해 아름다운 얼굴과 새로운 삶을 찾아 줄 것을 소망하며 아름다운 변화 프로젝트 (B.C.P)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순구개열 장애는 산모의 영양상태 부실이 주요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가난과 허기짐이 남겨 준 또 하나의 흔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소녀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변화 프로젝트(B.C.P)는, 처음 그 마음을 담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일공동체의 해외 분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만나, 구순구개열 장애 아동과 더불어 심장질환과 척추측만증 아동들은 다일천사병원을 통해 한국에 와서 무료수술 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00여명의 아이들이 얼굴과 몸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룰 수 있 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하는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맛이 납니다!!

회진을 돌 때마다 밥맛이 없었던 환우가 있습니다. 심장판막증으로 1년 전 심장판막 교체 수술을 받은 작은 천국(임종을 앞둔 노숙인 쉼터)의 환우분이신데, 얼마 전





무더위의 시작과 함께 입맛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더운 날씨 탓이라며 안심시켜 드리고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보철사업 대상자를 찾다보니 입맛이 없었던 환우의 앞니가 여럿 빠져 있다는 사실이 생각 났습니다. 보철 사업은 천사병원 사역중 하나로 매 달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치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번 달에는 이 환우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맛이 없었던 환우의 보철치료가 끝나고 나서 만나니, 입가에 어딘지 모르게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보철을 제공 받은 시점부터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환하게 웃어 보이면서 이제 밥맛도 돌아온 듯하고 더 이상 물에 밥 말아 먹는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 인상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로 이어지는 감동의 사

역은 해외 아동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다일작은천국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순구개열 수술을 받은 아이들도, 보철치료를 받은 환우도, 이제 남부럽지 않게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천천히 씹으며 그 참맛을 알아차려 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정성과 후원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역이야말로, 다일천사병원이 세워진 참된 의미이고 영원히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다일작은천국 - 천사들의 이야기

엄마 나 교회 나가도 되요?

다일작은천국에서 공동생활하시는 입소자들과 직원들 모두 '작은천국'이라는 이름 그대로 천국의 작은 기쁨과 하늘의 잔잔한 평화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원봉사자와 사회봉사활동을 나온 어린 학생들 또한 작은 천국에서 감도는 그 기운을 막연하게나마 느끼나 봅니다. 언젠가 한 여고생이 사회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서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작은천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아요 나 친구 따라 교회 나가도 되요?"



천국환송식, 그 의미

다일작은천국에서는 장례식을 ‘천국환송식’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작은천국에 사시고, 생을 마감하고서는 저 하늘의 큰 천국으로 잘 가시도록 환송을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남는 분은, 간암말기로 다일작은천국에 들어와 지내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신데,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당신네들 맘대로 하세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예요.”라는 싸늘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가족에게 한번 오시라고 끈질기게 설득하니, 마지못해 찾아 오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염사 봉사를 하고, 입관예배며 발인예배까지 모든 과정을 직원들과 입소자들이 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진행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본 가족들은, 결국에는 얼음장 같았던 마음이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버리게 되었나 봅니다.

발인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운구하기 전 한 분씩 고인을 향해 이야기를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00야 그동안 고생했다 네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천국에 가니 좋다, 잘 가라.”

“어이, 00씨 잘 가시게 내 곧 뒤따라가리다.”

그 중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인사는 유족들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바랐었기에, 유족들의 인사는 가슴을 저미게 하면서도 따뜻하게 합니다.

“.....,여보.....,미안해요......”

+ 노숙인들이 차가운 바닥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바라던 처음 그 마음이, 2011년 6월, 드디어 노숙인을 위한 쉼터 다일작은천국으로 개원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쉼터 개원 이래 7명의 입소자 분의 천국환송식을 갖었습니다.

다일천사병원과 다일작은천국은 단순한 치료 장소 그 이상입니다. 퇴원 후 오갈 데 없는 환자들을 위해 적절한 곳을 연계해 드리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은 회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드리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단절되었던 가족들과의 재회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따뜻하게 잡아 주시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곳은, 그 어느 약보다 좋은 사랑으로 마음까지 치료합니다.



이 토 록
뜨 거 운
만 남 을
위 하 여



휴가철이면 경춘 고속도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휴가차량들로 심한 몸살을 앓습니다.

청량리 밥퍼에서 이곳 설곡산 다일공동체까지 평소 한 시간이면 족히 오던 것이 네 시간이 넘게 걸려서야 올 수 있을 정도 였으니, 상황을 대충 짐작하고도 남을만 합니다.

무더위를 피해 모두들 동해바다로 향하는 짝 막히는 이 길을, 아무런 짜증도 없이 오히려 기쁘게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토록 뜨거운 만남을 위해서 말이죠…….

진정한 나와 의 만남으로 찾은 아름다운 세상

이번 여름 1단계 ‘아름다운 세상 찾기’ 137기, 138기가 연이어 진행된 영성수련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각각 각처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별칭 짓기입니다. 이곳에서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붙었던 이름, 직위의 딱지는 다 떼고 오로지 너와 나 벗이 되어 4박 5일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성수련에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또 묻는데 길이 없는 길을 걷는 느낌이랄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찾은 벗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만든 생각의 겹질을 깨고, 느낌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던 율법과 눈치와 체면을 과감하게 다 벗어 던지고, 진정한 나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살아 오면서 평생 흘린 눈물보다 4박 5일간 이곳에서 흘린 눈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눈물로 마음이 깨끗하게 씻기더라고요.”라며 고백하는 벗님들의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며 꽃보다 아름답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마주 앉은 이 밤에…….

1단계 다일영성수련 ‘아름다운 세상 찾기’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는 특별한 치유와 회복의 장이 있습니다. 바로 영성수련 마지막 날 경축의 밤인데요, 어김없이 이번 기수도 아름다운 세상을 찾은 선배 벗님들과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 그리고 축하를 위해 프랑스에서 온 안태영 선교사님 부부와 서울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한 걸음에 달려 온 많은 분들이 이 밤을 환하게 밝힙니다.



무슨 힘이기에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도, 짝 막힌
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
려올 수 있었을까요?
지켜본 결과 경축의 밤에
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그동안 당신이 가해자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그 피해의식과 고정관념까지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면서 부부간에, 가족과 동료 간에 열린 가슴으로 하나 되는 이 뜨거운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화해와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넘어 이웃에게 이어지는 만남, “좋지 아니한가요?”

영성수련장에서 인도자(최일도 목사)외에도 노란명찰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 파란 앞치마를 두른 분들을 이 곳 저 곳
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분들을 한번 따라가 보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성수련 인도자를 포함한 모든 동역자들이 아름다운 다일의 전통을 따라서, 다일영성수련 1기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
도 강사비, 수고비, 교통비 일체 없이, 어떠한 보상도, 대가도 없이 계속 자원봉사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올 여름 특히나 더운 날, 연속으로 진행된 1단계 ‘아름다운 세상 찾기’,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루도 쉬지 않고 오로지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열정으로 멀리 창원에서, 포항에서, 부산, 전주, 대전 등
에서 이 산골짜기까지 올라오셨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찜통더위에 영성수련 안내하느라 혼신의 힘을 다하신 최일
도 목사님과 프로그램 도우미님, 뜨거운 불 앞에서 매 끼니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진지도우미님께 짹! 짹! 짹!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 누리는 경험은, 나를 넘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만남 “좋지 아니한가요?”



방학동안의 뜻 깊은 '밥퍼' 봉사

밥퍼 봉사를 하면서 저는 3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둘째, 저의 사소한 행동들 하나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고 청소, 식판 설거지, 물 떠다 드리는 이 사소한 봉사활동이 결국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푸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베풀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봉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밥퍼'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받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4번의 짧은 봉사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Trinity-Pawling School 이라는 미국 보딩스쿨에 재학중인 장우혁 학생입니다. 여름방학이 석 달이나 되는 덕에,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모자란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학원 원장님께서 '밥퍼' 라는 곳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처음 그 이름을 듣고는 단번에 어떤 봉사를 하는 곳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밥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장소구나 말이죠...그러나 위치가 청량리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잠시 고뇌에 빠졌습니

다. ‘밥퍼’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생각보다 먼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학원공부 때문에 재충전이 필요한 시점이여서 뜻 깊은 봉사를 하면서 충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위치가 먼 탓에 오히려 방전이 될까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며 봉사를 하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봉사하러 가는 첫날, 청량리로 가는 길이 초행길인 탓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퍼’로 가는 길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출발했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간 ‘밥퍼’에는 아침부터 어르신들께서 줄을 서 계셨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보니 저의 마음 한편이 찡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서 10여 분간의 간략한 설명과 기도 후에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제가 한 봉사는 창고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저는 창고 문을 여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냄새 때문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창고 청소를 다 하고나자 어르신들 식사 배식시간인 오전 11시가 되어, 주방에서 식판을 설거지팀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유난히 더운 날씨라 땀은 비오듯 흘렀지만, 열심히 일한 마음에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두 번째 밥퍼 봉사, 처음보다는 수월하게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애 처음 까보는 양파 때문에 눈이 매워오자 매일 음식을 준비하시는 어머니가 떠오르며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양파를 다 까고 나니 오전 11시가 되었고, 밖에 나가서 어르신들에게 물을 떠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땀을 흘리며 서계신 어르신들이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처로웠습니다. 저는 섬기는 마음으로 최대한 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게 친절하게 물을 떠드렸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미소와 행동에 참된 보람을 느꼈습니다.

‘밥퍼’에서의 세 번째 봉사는 식판 설거지였습니다. 어김없이 힘든 일이었지만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땀 흘린 뒤에, 자원봉사 어머님들이 만들어 주신 냉커피를 마시고 나니 더위가 싹 가셨습니다.

네 번째 ‘밥퍼’로 봉사를 하러 가서는 사무직을 도와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봉사한 4일 동안 참여하지 않은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에게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 전보다 더 열심히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간병하러 온 것인데...”

지난 달, 다일천사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000님은 협력병원의 도움으로 진단과 수술을 잘 받고는 다시 천사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위를 모두 잘라내는 힘든 수술을 잘 견디고 돌아온 000님의 손에 들린 수술 결과지는 밝은 표정만큼이나 좋은 결과였습니다. 진행성 위암 2기! 성공적으로 수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우분이 진료실을 나가기 직전, 자신을 간병하러 중국에서 잠시 와 있는 부인을 진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진료실에 들어온 부인은 2년 전 대장암으로 중국에서 이미 수술을 마친 상태인데,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받지 못한 채 간헐적인 복통을 끌어안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일천사병원에 온 김에 협력병원의 도움을 받아 CT 를 포함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흘 뒤 다시 찾아온 부부가 들고 온 결과는, 너무나 뜻밖에도 대장암 재발 및 간, 폐 전

이였습니다. 이미 간으로 암이 상당히 퍼져서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인데, 폐까지 군데군데 암이 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수술로는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행된 사실과,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하기 힘들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부부에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을 잠시 나가 있게 하더니, 제게 온갖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정죄, 착하게만 살아온 자기들에게 어쩌서 암이 생기는지 등 마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싶은 듯 거침없이 토로합니다.

30여 분의 긴 상담이 끝나고 난 뒤, 부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현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눈시울을 적시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초연히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진심어린 감사의 악수를 나누고는 진료실을 떠났습니다.

한 환우는 새 삶을 얻었고, 다른 환우는 이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암으로 수술 받은 남편은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고, 그를 간병하러 온 부인은 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둘에게는 아직 수개월 혹은 길면 일 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마음의 앙금과 상처를 씻어내고, 배우자의 참된 모습을 알아차려가며 못 다한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다일천사병원에는 오늘도 이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글/ 김민준 의무원장(다일천사병원)

Philippine

당신의 아이이며, 우리의 아이입니다.



필리핀 다일유치원 원아인 마크의 여동생이, 희귀병이 걸려 마닐라 근교의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생명까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놀란 마음에 찾아가던 병원에서 만난 세 살짜리 페레츠는, 희귀병이 발병한지 이틀 만에 온 몸이 불에 데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수포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소식을 들은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학부모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꼬깃꼬깃 지폐와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빈민촌에 사는 삼십여 명의 학부모들에겐 너무나 귀한 동전 하나 하나까지 모아서 가져온 돈은 270페소(한화 8,000원 정도), 이웃의 아이를 살리고픈 부모의 마음을 담아 온 것입니다.

며칠 후 페레츠의 안부가 궁금하여 병원에 방문 한다는 광고를 하였더니, 다일유치원의 현자인 선생님 룯이 오늘 하루 일한 자신의 임금을 전부 주면서, 페레츠의 병원비로 보태 달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번 삼십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모은 돈의 액수 만큼인데, 티쳐 룯에게는 참 큰 돈입니다.

마을 이곳 저곳에서 모아준 정성을 가지고 찾아가 보니, 아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피부가 허물 벗어지듯 벗겨진 상태지만, 이전의 예쁜 페레츠의 얼굴을 다시금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길로 한 걸음에 달려와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아이의 소식을 전했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퇴원하던 날 마크와 페레츠의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센터로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에 유치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로지 내 아이만 생각하고, 아이에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성취적 행복에 몰입하도록 가르치는 부모, 이웃을 돌아볼 틈 없이 나만 바라보고 길을 가게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에, 페레츠의 이야기는 마음 한켠이 뭉클하면서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란 격언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결국 내 아이의 친구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공동체 정신으로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아이가 속한 가족이 건강해지도록 격려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마을이 아름답게 변화하고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사랑 받은 가정과 아이는 또 다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을이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아이들은 꿈을 키워 갈 것입니다.

페레츠는 한 가정의 아이이면서 한 마을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필리핀 다일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글/ 김혜경 원장(필리핀다일공동체)



큰언니, 해연이의 마음



China

중국다일어린이집의 큰 언니인 한해연은 현재 상해의 한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아 가끔 통화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재미난 일화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어느날 해연이가 통장에 돈을 보냈으며, 앞으로도 매달 월급을 받으면 일정하게 정한 액수를 동생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회사 분들에게 다일어린이집을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상사분도 중국다일공동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멀리 떠나 있으니 가족들이 그립고 받은 사랑이 너무 소중하고 컸음을 느낀다며, 동생들을 위해 뭐가 해 보고 싶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가장 기쁜 것은 해연이가 사회에 나가 다일어린이집에서 자랐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후원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면, 숨기고 고아원이 아닌 평범한 집의 아이라고 말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말이죠....



해연이는 고등학교 입학 후 한 달 만에 체육대회에서 허벅지를 다쳐서 수술을 받았으나 고등학교 3년 내내 다리에 철심을 박고 다녔어야 했습니다. 훈춘에서의 1차 수술이 잘 안되어 똑바로 걷지 못하게 되자, 고 2때 한국에 가서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위해 방문했던 한국에서 기회가 되어, 큰아버지(최일도목사)가 인도하는 다일영성수련에 참가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낫신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드러내고 바라보는 순간이었다고합니다. 지금도 해연이는 다리 수술 받으러 한국에 갔으나 다일영성수련을 통해 결정적인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두고두고 고백한답니다.



2003년 중국다일공동체 가족들과 함께(맨 오른쪽 해연)

해연이가 정말 사랑으로 잘 컸구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컸구나...
 다일어린이집의 13년 사역이 참 귀하구나...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생각이 들며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일하심을 고백하며 직접, 날마다 눈으로 보고 있으니
 어찌 아니 행복하겠습니까!

글/ 김학용 원장(중국다일공동체)

네팔, 여성을 위한 여심 프로젝트

대안생리대 보급사업

네팔 여성들은 생리를 신의 저주라 생각하거나 불결하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여학생들은 생리기간 동안 아예 학교에 나가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이제 막 무상공급에서 유상으로 바뀐 종이생리대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수많은 빈민촌 사람들은
나무 껍질이나 천을 돌돌 말아 사용합니다.

네팔 다일공동체에서는 네팔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마느하르 강변 빈민촌 마을 주변의 여성들을 위해 여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여성들의 고귀한 성에 대해 편견을 없애주고 천으로 만든 대안생리대를 직접 만들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거리가 거의 없는 네팔 여성들을 위한 재봉기술 교육을 병
행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후원안내

국민 467701-01-128318 (사회복지법인다일복지재단)
문의 02. 2212. 8004 www.dail.org



아이가 몇 명이세요?

아이가 몇 명이세요?

11명이예요.

남편 직업은요?

어부인데요,

배가 낡아서 고기를 못 잡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럼 밥은 어떻게 드세요?

밥퍼에서 애들이 가져오는 거 먹기도 하고..그래요..

집수리를 위해 찾아간 한 가정에서

나는 대화에 말문이 막히고

마음이 멍멍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라며 집을 나와

뒤를 돌아 본 순간

쓰러져 가는 집에서

아이들과 웃고 있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가난한 삶이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음을 잃지 않는 엄마에게

힘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이

잘 자리날 수 있도록 말이죠..



02 <다일평화의마을> DTS수료식



03 <설곡산다일공동체> 137기 아세찾기

국내분원소식

01 다일복지재단

다일공동체 창립 24주년 기념행사 및 K-TV특집방송

9월 10일은 다일공동체의 24번째 생일입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국내·외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한 24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내다보았습니다.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했던 홍보대사, 협력대사, 자원봉사자, 밥상공동체 식구들이 모두모여 K-TV 시대공감Q, 멘토링 토크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주제로 나눔과 봉사, 기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9월 10일 K-TV, 오후 3시 방송)

02 다일평화의마을

D.T.S 수료식

다일예수제자훈련 3개월 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훌륭하게 마치신 D.T.S 23기 변규리(이슬)님과 서봉규(알콩)님이 다일교회에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훈련기간 동안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헌신하신 두 분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료를 마친 변규리님은 8월 22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의 자비랑 단기선교사로 1

년간 캄보디아의 가난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D.T.S 신입 훈련생

9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온 김성은(아엘)님과 한행수(스카이)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훈련받기 위해 각자 삶의 터를 떠나 묵안리 다일평화의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묵안리 노동기도

다일영성수련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 43기 벗님들이 수련 과정의 하나인 노동기도를 왔습니다. 여름내 잘 자라난 묵안리 평화의 마을 텃밭의 파, 오이, 깻잎 수확과 밭갈이 그리고 무우 파종을 도왔습니다. 작은예수 43기가 최고야!!

03 설곡산다일공동체

연이어 진행된 영성수련

뜨거운 여름에 우리 마음 갈한 심령을 시원케 하는 다일영성수련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설곡산에서 7, 8월에 연이어 열렸습니다. 7월 30일~8월 3일 138기 아름다운 세상 찾기, 8월 6일~10일 139기 아

름다운 세상 찾기, 8월 13일~18일 2단계 43기 작은예수 살아가기, 8월 19일~25일 3단계 15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벗님으로, 도우미로, 인도자로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찬양과 예배와 쉼의 설곡 동산.

이번 여름에는 교회 및 단체의 하계성경학교와 하계수련회 및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늘고 있으며, 모두들 입을 모아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쉼과 평화를 잘 얻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설곡산다일공동체의 모든 시설들은 개인, 교회, 각종 단체들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04 예향어린이집

실외 풀장에서 물놀이

8월 6일, 예향어린이집 실외놀이터에 넓고 넓은 풀장이 설치되었습니다.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이기기 위해서 우리 예향 친구들이 참빙참빙 물놀이를 해보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서 물장구도 쳐보고 수영도 하며 신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실컷 물놀이를 하고서도 물에서 나오기가 싫어서 울음을 터트리는 일도 있었답니다.



04 <예향어린이집> 침범침범 신나는 물놀이



05 <미주다일공동체> 침묵수련특강



06 <네팔다일공동체> 희망교실 꿈나무들

유아안전교육(소방)

8월 17일에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집 내에서 소방안전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의 주제는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알아요'로 우리 친구들이 불이 났을 때 어린이집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불을 더욱 조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안전교육시간이었습니다.

팔빙수 만들기

8월의 주제 '더워요'와 연계하여 만 3세반 유아들이 시원한 팔빙수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음식으로 팔빙수를 제일 많이 생각한 우리 친구들이 직접 팔빙수에 어떤 재료가 들어갈지도 정해 보고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팔빙수는 친구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으며 시원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 외 분 원 소 식

05 미주다일공동체

침묵수련특강

8월 18일(토) 김연수 상임이사님의 특별영

성특강이 있었습니다. 미주에서 많은 분들이 영성수련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드리며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미주에서도 렉시오디비나, 상상력을 활용한 묵상, 침묵수련 그리고 다일영성수련 1단계 아름다운 세상 찾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미주다일공동체에는 차와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 문화공간 유빌라페와 한 달에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있는 밥퍼 봉사를 섬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랑으로 참여할 분들을 환영합니다. 문의: (770)813-0899

06 네팔다일공동체

모자이크교회 단기선교팀

모자이크교회(담임목사 박종근)에서 18명의 단기선교팀이 봉사와 후원으로 섬기고 돌아갔습니다. 일전에 모자이크 교회에서 후원한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항상 열심히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일비전트립팀

다일공동체 직원, 봉사자 11명이 모여 네 팔다일비전트립을 왔습니다. 밥퍼 봉사 이외에도 3일동안 의료 캠프를 열었는데, 특별히 산부인과 전문의 이선영 선생님의 여성건강에 관한 강연은 집시촌 여성들, 센터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약품과 후원물품, 후원금(2,700불)도 전해 주셨습니다.

희망교실의 꿈나무들

빈촌에서도 가장 가난한 네팔 집시촌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희망교실'이 희망이 없는 아이들로 하여금 희망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네팔어, 산수, 미술, 음악교실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자존감도 깊어지고 있으며, 평생 학교 문턱도 밟지 못했던 아이들이 희망교실을 통해 네팔어를 쓰고 읽으며 내일의 희망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정 네팔어도 쓰고 자신의 이름을 쓰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는 스태프들에게도 감동입니다. 이 아이들이 꿈꾸는 나무로 희망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도록 다일과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07 <베트남다일공동체> 열심히 봉사중인 최하승학생 08 <중국다일공동체> 온누리 JDS팀과 함께

07 베트남다일공동체

광명일심교회 청년부 봉사.

광명일심교회 박경제목사님 외 청년부 17 명이 배식비 후원과 봉사를 했습니다. 박 목사님은 "20년 전에 처음으로 청량리 다일공동체 밥퍼 사역을 알게 되었는데, 베트남에서도 밥퍼 사역지를 방문하고 봉사하게 되어 기쁘다"며 다일의 사역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천온누리교회 중등부 봉사

부천온누리교회 전도사님과 코치님, 교사와 중등부 학생 15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흑목고아원을 방문하여 준비한 율동과 학용품, 축구공 등을 전하였고, 흑목고아원 아이들도 답례로 노래와 율동을 선물했습니다. 오후에는 밥퍼 사역지에 식사하러 오시는 한분 한분에게 미소와 정성으로 봉사했습니다.

포스코ICT 밥퍼 봉사

정기적으로 매월 2회 봉사를 오는 포스코 ICT 김광석소장님과 직원 5명이 밥퍼 봉사를 했습니다. 매 번 봉사 올 때 마다 직원들이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쌀 20kg을 사와서 좀 더 도움이 필요한 두 가정을 선별하여 쌀을 전해 주십니다. 이번 봉사에도 어김없이 쌀과 바나나를 준비해서

나누었습니다.

흑목고아원 새끼돼지 후원

지난 2월 천안 신천장로교회 비전트립 2기팀이 흑목고아원 아이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새끼돼지 열 마리를 후원했습니다. 어느 덧 새끼돼지들이 자라나 아홉 마리는 팔렸고, 돼지우리 안에는 한 마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천안신천장로교회 집사님이 이번에도 후원해 주셔서 새끼돼지를 흑목고아원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최하승군의 밥퍼 봉사

방학을 맞이하여 놀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9학년(중3)에 재학 중인 최하승군이 방학동안 매주 밥퍼 센터에 봉사를 왔습니다. 왕복 4시간이라는 시간과 6번이나 버스를 갈아타면서도 피곤해 하기 보다는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꺼려하는 설거지도 술선수범하여 봉사하는 하승군은 요리하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봉사를 즐기고 기뻐하는 하승군이 요리사가 되어 밥퍼 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08 중국다일공동체

온누리교회 어린이 JDS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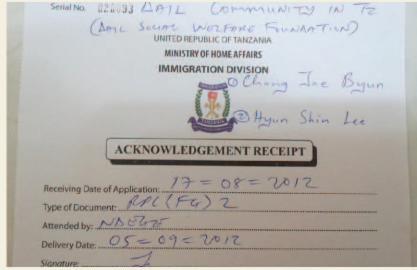
다일의 후원자이신 김성재님의 소개로 한국의 온누리교회 어린이 JDS팀이 7박 8일의 일정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일 어린이집의 아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라 공감대가 생기는지 처음엔 쑥스러워 하더니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갖았습니다.

미국 예수전도단 방문

현지의 든든한 후원자이시며 봉사자이신 앤 선생님과 미국 예수전도단이 방문해서 한주간 영어공부와 참 다양한 특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개강준비

새로 중·고등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중국학교 입학 시 의무 활동인 군사훈련(1주일)을 잘 받고 각자의 학교로 떠났습니다. 멀리 대학교가 있는 마웨는 3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개학준비를 하러 떠났고, 최예화는 장춘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장춘으로 떠났으며, 직업중고에 입학하는 하이버, 하이타오, 아오쭈양은 도문으로 입학했습니다. 새학교,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09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이송업단원과 함께

10 <탄자니아다일공동체> 체류비자접수 중

11 <필리핀다일공동체> 알파벳을 공부해요

09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Farewell & Welcome

대학생 봉사단인 라온아띠 7기 5명의 형제자매들이 5개월의 봉사를 마쳤고, 코이카 인턴단원으로 애써주신 이송엽 간사 또한 1년간의 봉사를 마감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살아가며 사역하는 시간 서로에게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9월에 캄보디아로 오게 되는 라온아띠 8기 단원들과 자비량 단기선교사로 캄보디아 땅을 밟을 변규리(이슬)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동교회 의료봉사

경동교회 의료선교팀이 오셔서 우리 마을과 쓰록뿌억에서 의료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의사선생님들과 교회성도님들 모두 한 마음되어 낮은 모습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모습들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의료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몸이 아픈 우리 이웃 분들을 위해 이와 같은 진료의 기회들과 귀한 분들의 봉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서울대, 동경대, 프놈펜 왕립대 대학원생들, 교수님들 30명이 방문하셨습니다. 개

발도상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지역들과 어떻게 협력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갈지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웃을 돕는 선한 일들에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는 아시아의 인재들에게 저희의 사역을 소개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오고가는 많은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귀한 비전을 품고 선한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 탄자니아다일공동체

탄자니아정부에 NGO등록

그동안 준비한 NGO 등록 서류를 8월 10일 접수시켰는데 3일 만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안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빨리 등록이 되니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지난 6월 KOICA-NGO 간담회 때 만난 NGO 담당 공무원 Mr.Juma가 서류 절차 밟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일공동체가 탄자니아 땅을 밟기만을 기다리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체류 비자 신청

NGO등록의 다음 순서로 이민국에 가서 체류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민국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보충해 오라는 서류도, 덧붙이는 말도 없이 바로 접수하여 접수증을 써 주었습니다. 기쁜 소식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11 필리핀다일공동체

필리핀 다일드림유치원 2기

제 2기생 40명이 입학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의 함성과 노랫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아직 1:1 아동결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무지개 빛깔 꿈을 캐스팅 해주신 분들을 기다립니다.

상수도 설치사업 진행 중

빈민촌 가정의 지붕개량에 이어 상수도 설치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도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아 물 없이 사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수도 설치만 되면 매달 수도 요금은 감당이 가능하여서 온 가족이 생활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다일의 자원봉사자"



목동감리교회 고등부가 밥퍼 봉사하러 왔습니다. 학생들은 밥퍼봉사를 자기집의 일처럼 열심히 하고 돌아갔습니다.



무료배식을 야외에서 하는 첫날, 더운날 썬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가 밥퍼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내리 쬐이는 태양 아래서 바쁘게 손을 움직여 설거지를 합니다.



십 년째 밥퍼에 우유를 후원하는 서울우유 봉사팀! 서울우유 덕분에 어르신들은 나날이 건강해지십니다.



외환은행 고객 이아린님께서 지정 기탁 후원 및 밥퍼봉사를 했습니다.



배우 정성경님 둘째딸 안유주의 생일을 맞아 뜻깊은 나눔을 하고자 밥퍼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념일에 뜻깊은 나눔으로 동참해 보세요.



제주성안교회 중등부 수련회 마지막날 밥퍼봉사를 왔습니다. 먼 길 조심히 돌아가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직원들이 더운 날씨에도 밝은 미소로 봉사하고 후원금도 전달했습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2012년 7월 26일~8월 22일 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8월 신규후원

(주)SC제일은행, (주)국민은행성동지역본부, (주)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KT(NEW2), 강남cbmc, 강혜원, 고양시학생, 권영신, 권윤경, 김광만, 김기웅, 김대홍, 김석군, 김세희김세동, 김수환, 김영상, 김예슬, 김옥경, 김은경, 김은수, 김정은, 김정희, 김학민, 민길순, 박순덕, 박현, 배수정, 배해선, 백승희, 백인순, 신동채, 안동일, 연경선, 염수완, 오수진, 원하선, 유후선, 윤서영, 이옥재, 이은경, 이은이(강명호), 이인숙, 이정임, 이정희, 이종한, 이준용, 이지예, 이희동, 전혜인, 정미경, 정정희, 정찬수, 정한나, 조경민, 조문자, 채송하, 최우현, 최은희, 최지연, 최홍, 하현선, 한광재, 한충상, 홍성미, 황윤송

법피나눔운동 후원

[후원금]

광현교회(7,8월), 신민숙, 성동교회, 흥경화, 전성경, 금옥초등학교, 김수일, 박종일, 일산은혜교회, 한국허벌라이프, 이종욱, 고양시 학생들, 강남CBMC, 엠엔 글로벌, 서울메트로, 황귀중, 서장선, 양순화, SK 텔링크, 채송하, 수도권산악회, 채상래, 한국수력원자력, 채경근, 김수미, 대한진적공사 동대문지사, 국방홍보원, 이일욱, 중소기업중앙회, 홍남숙, 이종원 (돌기념), 외환은행 나눔재단, 이아린(외환은행 고객), 김수현 팬클럽

[후원물품]

- 7/17 두리반 김치 1박스
- 7/18 서울우유 우유 1008개
- 7/18 동대문 적십자 빵 400개
칼국수 200개
- 7/19 KT&G 복지재단 감사10kg 4박스
사주회포김 850장
- 7/24 강초하 씬박이 1박스
- 7/25 한국장류협회 된장 고추장 15박스
- 7/25 국민나눔운동 우유 1000L 600개
- 7/26 교연연 떡 1박스
- 7/26 서울 메트로 쌀 20kg 25포
- 7/27 강초하 씬박이 1박스
- 8/4 스탠다드 햅타드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 250장
- 8/4 김귀남 쌀 20kg 10포
- 8/6 동대문 적십자 빵 400개
- 8/8 무명 수박 8통

설곡산다일공동체

[방문하신 분]

장안제일교회, 주님의교회 청년부, 군포교회, 푸른나무교회, 당산동교회, 두레교회 중등부, 복 있는교회, 분당성서교회 중등부, 소망교회 청년부, 양문교회, 다비다선교회, 성은교회, 경기중앙교회 중,고등부, 경기중앙교회 청년부, 박남석장로 외 11

명, 최희성 가정, 우정수, 오성용, 우재석, 이승규

< 해외분원 >

중국다일공동체

[방문·후원해 주신 분]

김성재(Obey & Praise), 시카고 Jimmy·이숙의, 온누리교회 어린이 JDS팀, 평생후원자, 대전 동안교회, 이은준, 한기모, 지춘란, 다일교회, 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더), 영광제빵, 한해연, 이순선, 이종원, 김영애, 하은이네, 김학용

베트남다일공동체

[나눔회원(\$100의 기적)]

광명일심교회(\$150), 대우INTERNATIONAL, 포스코베트남(300만동), 아리랑화학, 최용하가족, 동아IVCB, 심상원, 포스코 SOUTH ASIA, 강훈구, 사이공한인연합교회, 한희준(600만동)

[매월정기후원자]

정영숙, 전기성, 송윤서, 홍지승, 추원미

[후원물품 및 후원자]

도넛도넛(도너츠178개), 포스코ICT(쌀 20kg.바나나), 부천온누리교회(회충약,죽 10kg)

[후원금]

정성호(50만동),

최혜인, 헤림, 기흥(100만동)

[모금함]

포스코베트남(1,231,200동)

[자원봉사자]

포스코베트남, 조윤현·김대업·최진혁·우정재 외 30명, 포스코ICT, 김광석·정혁선·박용남·장준화·이인규·이택희·김성태 외 10명, 대우INTERNATIONAL 박경원·최시호·이준석 외 6명, 포스코 SOUTH ASIA 서도석 외 6명, 설세란, 설선호, 전경주, 이수빈, 최하승, 최용하, 안

연숙, 다빈, 다현, 다원, 심상원, 심수진, 심홍진, 심규선, 조영권, 오채린, 김수민, 차준호, 이은향, 김막례, 김형환, 박수환, 서명식

필리핀다일공동체

필리핀PTS한인교회, 지일환, 문정호, 신동이, 신동환, 한상소, 정두용·예혜선, 전용민, 한유정, 유현서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천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

[7월 후원자]

서울동노회 세계선교화성화위원회, 영산대학교, 창천교회, 김포대학교, 도봉감리교회, 종신대사회복지학과, 김종민,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딸기작목반 일동, 고세인, 박신애, 최하연, 김미숙, 혜천대학교, 러브김디 도서후원금, 라온아띠 7기, 서강대대학원, kt&g복지재단 이사장 곽영균, 장전제일교회, 장전제일교회 안중태목사·전영은사모, 한일장신대 임희모 교수, 백석사회봉사센터, 백석대학교교회 박솔몬·박사론, 부산YWCA, 원달수 교수, 입석교회, 베트남지구촌 새생명교회 중고등부, 김병우, 캄다일 뽀안이 후원모금, KADO 정기후원, 무명4명

[8월 후원자]

이어진·이예진, 양승광, 계령국악예술단, 해방교회 박영국목사, 해방교회, 이동현·이동재, KT&G홍보실 설윤지, 한성교회 단기선교팀, 밀양남부교회, 김건정 선교사, wattana, 토마토은행, 청주좋은교회, 원당중앙교회, 김진영, 성민교회 중고등부, 하나투어 클럽나우, 신반포교회, 연두, 순천제일교회, 대전평안교회, 인천중앙교회, 무명3명

다일은 여러분의 맘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30%(최대 3만원)가 다일공동체에 가입회원님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 사랑의 쌀 환환

한번만 쓰고 폐기하는 1회용 환환 대신에 개업식, 결혼식, 장례식 등의 애경사에 기존의 꽃 화환 대신 사랑의 쌀 화환으로 축하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나눔쌀 상품권을 전달하여 4인 가족이 2달이상 충분히 먹을 만큼의 나눔 쌀이 다일공동체에 주문회원님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지역 후원계좌

-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 은행번호 : 06119794
- 계좌번호 : 1510014622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34001270347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 국내후원계좌 국민은행 : **467701-01-053115**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minjuna8@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95-999-1004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855-12-808861

E-mail histime@dail.org

후원계좌 사업팀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프놈펜 국민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278 63-927-560-7346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1-384069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669 255-786-740-003

E-mail bcj337@dail.org / dail8004@g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5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푸드뱅크와 자원봉사자 은행이
여러분의 정성으로 세워집니다.



5천만원을 기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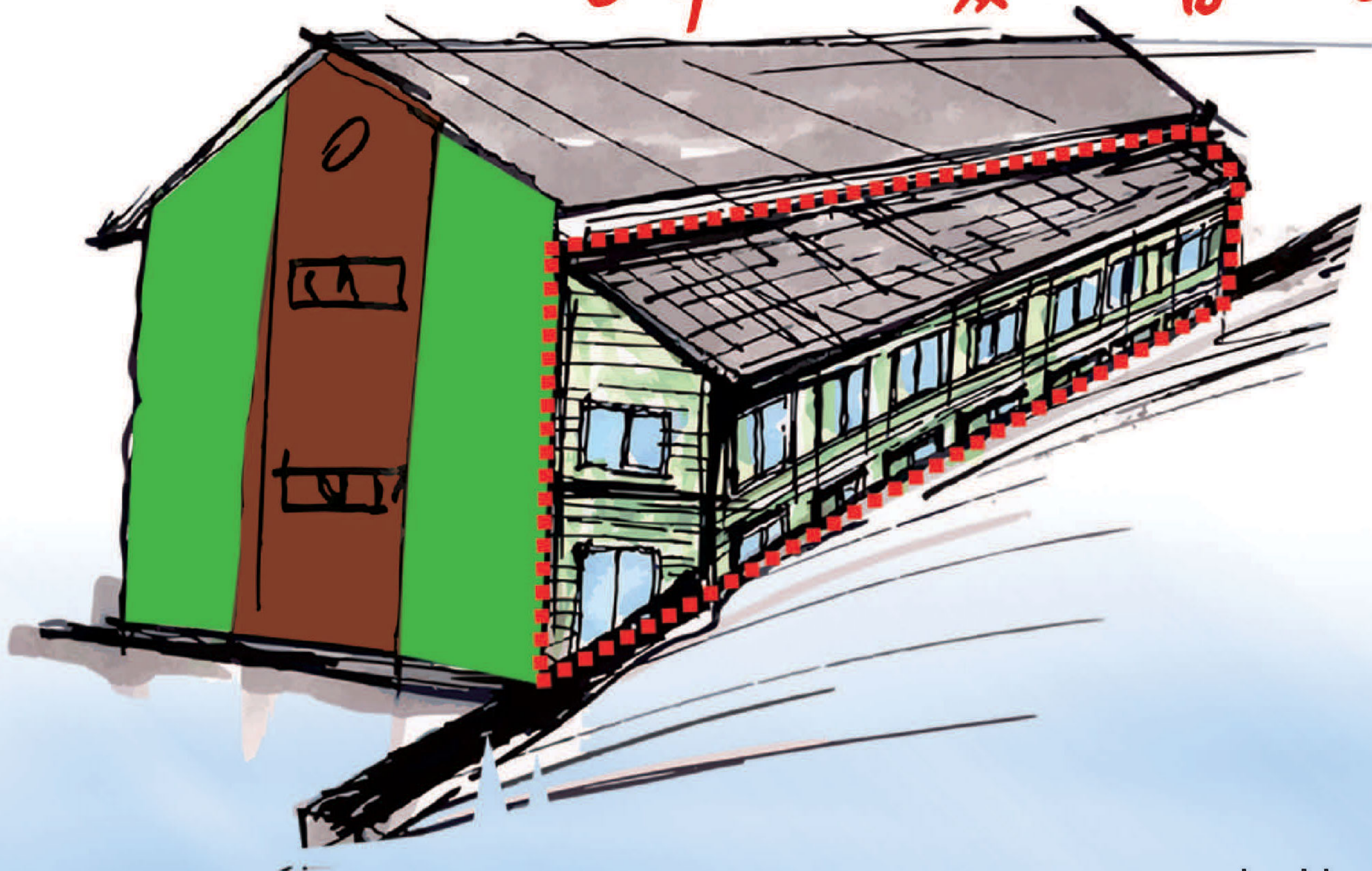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후원문의 02-2212-8004 다일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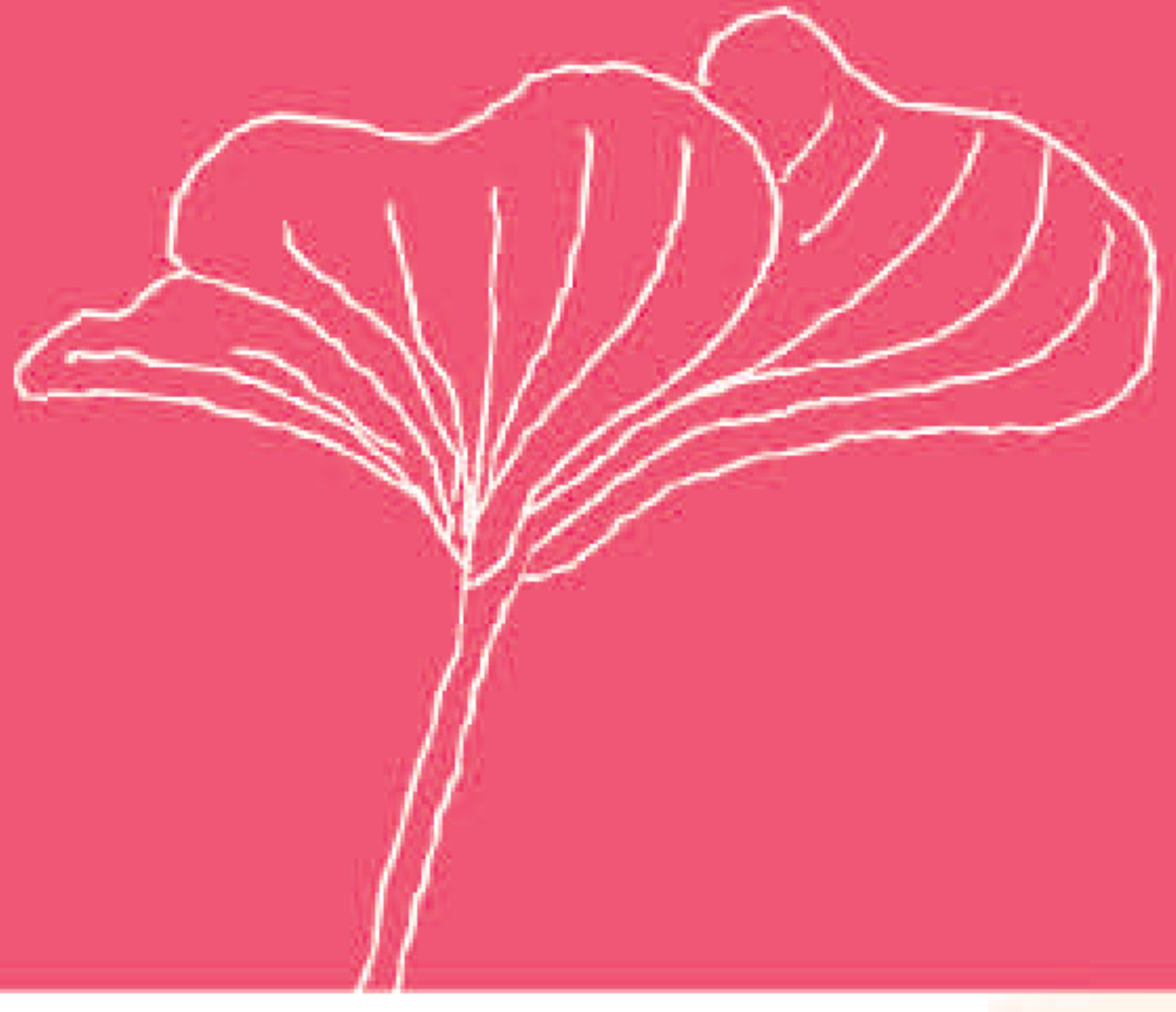
후원계좌 국민 467701-01-099432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증축되고 있는 밥퍼센터



www.dail.org



10월 4일(1004)은
천사의 날입니다.



1004

Angel's Day

시작부터 불가능하다는 부정들을,
후원금만으론 힘들 것이라는 우려들을,
무료병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아해하던 눈길들을,

사랑이 이겼습니다!



DaIL